## 세계 정상의 항공우주산업체(28)

# Gulfstream Aerospace Corporation

오늘날 비즈니스제트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을 꼽으라면 으레 손꼽히는 곳이 바로 걸프스트림.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약 25%가 넘는 기업들이 걸프스트림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.

### 브랜드명에서 회사명으로…

걸프스트림이라는 브랜드가 처음 세상에 나온 때는 1957년. 당시 그루만사가 터보프롭 추진 방식의 걸프스트림 I을 선보이면서부터다. 특히 걸프스트림 I은 군용기만을 개발하던 그루만사가 처음으로 선보인 비즈니스용 항공기. 1958년 8월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, 이후 그루만사는 터보제트 추진방식의 걸프스트림 II도 개발하기에 이른다.

성공적인 걸프스트림 시리즈 개발에 힘입어 1967년, 그루만사는 군용기 및 상용기 사업부를 분리, 이 가운데 상용기 사업부를 조지아주 서배너에 마련한 새로운 제작시설로 이전했다. 특히 이전 당시 인력이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1968년 말에는 1천여명으로 크게 늘었다. 이전 후인 1969년에 걸프스트림 I 최종호기가 고객에 인도됐으며, 걸프스트림 II는 1977년 최종호기가 인도될 때까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.

그러나 1978년 그루만사는 서배너 소재 걸프스트림 제작시설을 아메리칸 제트 인더스트리사(American Jet Industries)에 매각했으며, 회사명도 걸프스트림 아메리카로 변경됐다. 매각 후 아메리칸 제트 인더스트리는 걸프스트림 III을 개발, 1979년 첫 비행을 실시했다. 이런 가운데 회사 규모는 1982년까지 종사자가 2,50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, 회사명도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(Gulfstream Aerospace Corp.)으로 변경됐다. 예컨대 1985년에는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417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. 이후 1999년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걸프스트림을 인수한 데 이어 2001년에는 갤럭시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인수하면서 기업 규모는 더욱 커졌다. 이와 함께 이스라엘 IAI와의 협력을 통해 G100/G150/G200/G250 개발 및 생산은 이스라엘에서 이뤄지고 있다.

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걸프스트림 제작 시설

## 2009년 감소세, 올해 상승세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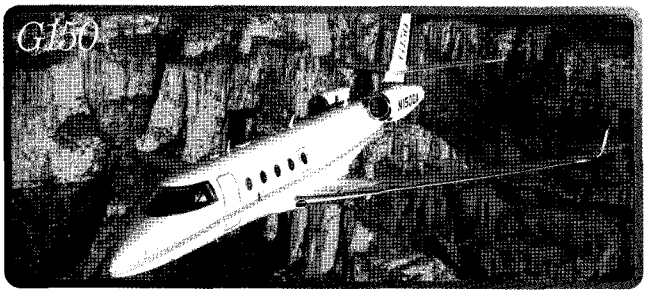
• 제너럴 다이내믹스 항공사업부 매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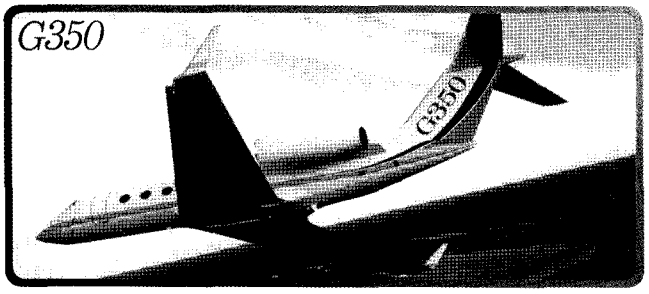
| Year Ended December 31 | 2009 | 2008 | Variance | |
|---|---|---|---|---|
| Revenues | $5,171 | $5,512 | $(341) | (6.2)% |
| Operating earnings | 707 | 1,021 | (314) | (30.8)% |
| Operating margin | 13.7% | 18.5% | | |
| Gulfstream aircraft deliveries (in units): | | | | |
| Green | 94 | 156 | (62) | (39.7)% |
| Completion | 110 | 152 | (42) | (27.6)%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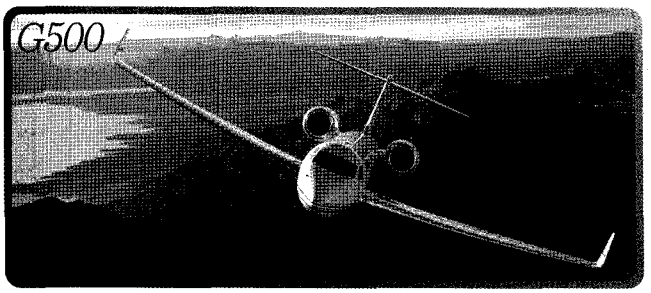
※ 자료 : 제너럴 다이내믹스 2009 Annual Repor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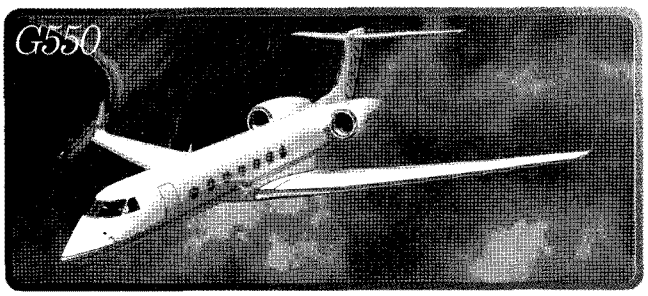
전 세계 비즈니스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걸프스트림이지만, 지난 한 해는 세계적인 불경기에 따른 비즈니스기 판매 부진으로 매출상황이 뒷걸음질을 했다. 걸프스트림의 매출 감소로 모기업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지난해 항공분야 총 매출액도 2008년 대비 24% 감소했다. 다행히 올해는 소폭 상승세를 탈 것으로 걸프스트림은 전망하고 있다. 걸프스트림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항공사업 분야 매출은 지난해 대비 5% 내외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, 대형 객실 기종을 중심으로 인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.

## 걸프스트림 주요 제품군




- **G650** : 초대형 객실, 초장거리형
  - 순항 속도/항속거리 : 마하 0.80/12,964km
  - 표준승객수 : 8명
  - 엔진 : 롤스로이스 BR725 엔진×2
- **G550** : 대형 객실, 초장거리형
  - 순항 속도/항속거리 : 마하 0.885/12,501km
  - 표준승객수 : 8명
  - 엔진 : 롤스로이스 BR710 엔진×2
- **G500** : 대형 객실, 초장거리형
  - 순항 속도/항속거리 : 마하 0.80/10,741km
  - 승객수용 : 8명
  - 엔진 : 롤스로이스 BR710 엔진×2
- **G450** : 대형 객실, 장거리형
  - 순항 속도/항속거리 : 마하 0.80/8,056km
  - 승객수용 : 8명
  - 엔진 : 개량형 롤스로이스 Tay 611-8C 엔진×2
- **G350** : 대형 객실, 중거리용
  - 순항 속도/항속거리 : 마하 0.80/7,038km
  - 승객수용 : 8명
  - 엔진 : 롤스로이스 Tay 611-8C 엔진×2
- **G250** : 대형 객실, 중거리용
  - 순항 속도/항속거리 : 마하 0.80/6,297km
  - 표준승객수 : 4명
  - 엔진 : 하니웰 HTF-7250G 엔진×2
- **G200** : 대형 객실, 중거리용
  - 순항 속도/항속거리 : 마하 0.75/6,297km
  - 표준승객수 : 4명
  - 엔진 : P&W 캐나다 306A 엔진×2
- **G150** : 광폭 객실, 고속용
  - 순항 속도/항속거리 : 마하 0.75/5,556km
  - 표준승객수 : 4명
  - 엔진 : 하니웰 731 엔진×2

## 고객의 요구에 맞춘 제품 다양화

걸프스트림은 최초 모델인 걸프스트림 I에서부터 최근 G650까지 15개 기종이 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으며, 전 세계 정부, 개인, 기업 등에 1,500여대 이상의 비즈니스기를 판매해 왔다. 특히 오늘날 제작 중인 모델들은 중형 객실에서 초대형 객실, 중거리에서 초장거리 등 다양한 성능으로 고객의 요구를 맞추고 있다.

초대형 객실과 초장거리 능력을 자랑하는 G650

이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종이 G650과 G250. 이들 두 모델은 걸프스트림이 초대형 객실과 초장거리 비즈니스기와 중형 비즈니스제트기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선보인 신형 모델. G650은 지난해 12월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, 오는 2012년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이다. 중형급 G250 역시 오는 2011년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이다.